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21년 1월

선교편지 제 139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라는 수식어를 동반하며 한껏 부풀은 계획과 소망으로 시작할 터인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금년 한 해가 어떻게 펼쳐질지 불투명한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새해를 시작합니다.

오래 전,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를 어떻게 감당할까 생각하는 중에 나이가 더 들어 기회를 놓치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선교지에서 선교사로서 헌신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제가 소속된 선교 기관의 규정은 선교지에서 4년을 사역하고 1년의 안식년을 갖도록 되어있었기 때문에, 4년을 예상하고 이곳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 이곳에서 벌써 14년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의 삶은 마치 나그네와 같아서, 이곳에 정착하는 초기부터 최소한의 살림살이로 떠날 날도 항상 준비해 왔었는데, 그 덕분에 아직도 같은 집에서 이곳에 도착한 그 모양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선교지에 처음 정착해서 동서남북도 구분하지 못할 때, 이곳에 이미 정착한 선교 7년차 고참 (?) 선교사님으로부터 먹고 사는 일부터 선교지에서 살아 가기 위한 각종 '주의 사항'에 이르기까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님과 여러가지 대화를 나누는 중에 마음 속 한편에서는 과연 무엇이 저들을 이런 열악한 곳에서 7년 썩이나 살게 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저희들도 거의 두 배나 되는 시간을 이곳에서 지나면서 얻은 해답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선교 사역에 쓰임 받는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된 까닭이라 생각합니다.

선교에 대한 강한 열망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러한 마음과 기도로 가득한 흠어져 있는 주의 종들을 연결하여, 마침내 한 걸음 씩 선교의 진보를 이루는 것을 볼 때면, 마치 하나님께서 훌륭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시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꼭 선교지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자리에서 제 역할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선교의 동역자들을 통하여 이곳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섬세하심과 섭리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동안 현지인들을 복음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의 정점은 그 어느 것보다도 '교회'에 있음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를 섬기며 지역 선교를 감당할 '주의 제자들'을 양육하는 일이 그 어떤 사역보다 중요함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세우고 주의 제자를 양육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래 전, 디고스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중의 하나는, 현지 복음화를 위하여 이 지역에 '교회 열 곳 (10)을 세우고, 백 명 (100)의 선교 장학생을 제자 훈련시키며, 천 명 (1,000)의 결신자를 허락해 달라'는 터무니없어 보이는 '10-100-1,000' 기도입니다. 소심하게도 아직까지 저 혼자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 일을 완수하려면 앞으로 50년을 이곳에 더 있어야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확신하기 때문에, 어떠한 모양을 통해서도 꼭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선교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난을 겪어야 하고, 인내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가게 될 줄로 믿고, '10-100-1,000'을 바라보며 2021년 희망찬 새해를 시작합니다. 금년 한 해도 선교 동역자 여러분의 많은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고요한 바다로)

1.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2.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3. 내 걱정 근심을 쉬 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둔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4.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여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곳도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저희가 살고 있는 '다바오'는 필리핀 내에서 확진자가 가장 빨리 급증하는 도시로, 격일제 외출, 15세 이하 65세 이상 외출 금지, 오후 9시부터 오전 4시까지 통행금지, 주류 판매 금지, 마스크와 안면 가리개 착용 등은 이미 익숙해진 일상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또한 동네 주변은 '안전을 위해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요란한 안내 방송차가 수시로 돌아다니고 있고, 집합 최대 인원을 10명 이하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교회가 지난 3월부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12월을 맞이하는 이곳 풍경은 생소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디고스 교회와 아팔라야 교회가 위치한 디고스 지역은 여느 12월과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사회적 거리와 다양한 준수 사항을 강조하고 있지만 시장마다 많은 사람으로 넘치고 있고, 느슨한 관리로 인하여 마치 시한폭탄을 손에 들고 있는 것 같이 불안한 모습이 곳곳에 눈에 보입니다. 저희 교회는 규정에 따라 인원 제한, 나이 제한,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알코올 소독, 1.5미터 간격을 유지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인들에 의하면 디고스 내 타 교회는 이를 거의 지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래 전 디고스 사역을 시작하면서, 마띠 지역에 있는 '마띠 교회'와 함께 지역 복음화 사역을 했습니다. 많지 않은 교인들이었지만, 매우 긴밀한 관계 속에서 초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받았었습니다. 특히 마띠 교회의 찬양팀과 함께 학원 사역 및 각종 집회를 매우 효과적으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마띠 교회는 강대상을 중심으로 반쪽 벽만 갖춘 열악한 상태였기 때문에, 성전을 완공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였고, 예배당 의자를 헌물 하였으며, 그 외도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마띠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즐거운 기억이 떠 오르는 감사한 교회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방문하지 못하다가, 성탄절에 즈음하여 마띠 교회 교인들에게 성탄 선물로 티셔츠를 전달하기 위해 주일 예배 후에 방문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스크를 착용한 교인은 단 한 명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각종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흔적이 전혀 없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가족과 같은 관계이어서 그러하겠지만, 모두 한 자리에서 함께 식사하고, 아이들은 서로 엉겨 붙어 즐겁게 떠들고 노는 모습을 보니,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에서 방문한 저희가 오래 있을 자리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쉽지만 가져간 선물만을 전달하고, 신속하게 돌아 나와야만 했습니다.

마치 살얼음 위를 걷는 것과 같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디고스 예일교회와 아팔라야 예일교회의 성탄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아팔라야 교회는 성탄절을 처음 맞이하기 때문에 성탄절 트리를 새로 장만하였고, 여전도 회원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정성껏 성탄 장식을 만들었습니다. 예년과 달리 성탄절 특별 순서도 최소화하고, 예배 후 만찬이나 특별 행사도 취소했습니다. 매우 간소하게 성탄절 예배를 준비하는 중에 가장 아쉬운 부분은 아직 아팔라야 교회에 찬양팀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지 4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아직 잘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찬양팀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새롭게 찬양팀을 구성하기 위해, 12월 한달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키보드, 기타, 베이스 기타, 드럼'을 배울 수 있도록 외부 교회 음악 전문가를 초빙해서 음악 레슨을 하기로 하고, 참가 인원을 모집했습니다. 각 악기마다 두 명 정도가 지원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광고를 했는데, 악기마다 인원은 다르지만 거의 40명이 악기를 배우겠다고 지원하는 곤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두 교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한된 악기 수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찬양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하고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악기당 4명씩 총 16명을 선정하여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현지인들이 악기를 배우고 가르치는 모습은 경이롭기만 합니다.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모두 '음악'을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오선지 악보'가 없이 레슨이 진행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특별한 달란트를 주셔서 전혀 불편함이 없이 진지하게 배웁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음악 지식을 더해 보지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침내 4주 훈련을 거친 후, 성탄 축하 예배에 새롭게 탄생한 찬양팀이 교인들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 하지만, 아무쪼록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 드리는 찬양과 경배의 소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이 지역에 크게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웁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쁨 받아 주소서



선교 사역에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Direct Bank Transfer: <https://www.zellepay.com> / ih.park@gmail.com
- Bank Account: Chase Bank / 110071151665 / Inho Park
- Check Mailing Address: Inho Park / 57-10 226th St. 1F. Bayside, NY 11364

